내 마음이 하늘에 앉은 증거

(엡2:11~22)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이 하늘에 앉은 증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앉은 증거, 증거가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얼른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그 두 가지 화평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평이 또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화평이 바로 내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는 증거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하는 것도 새삼스럽고 우습지만, 참으로 사도바울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지 몰라요, 참 굉장한 분이세요.
함께 하늘에 앉힌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감히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므로 육체와 연관돼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육체에 근거돼서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몸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상황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의 지위도 있고, 내가 어느 회사의 부장이라고 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장님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어느 가정의 가장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이 되는 거고, 가장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여자와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다는 얘기고, 또 아이들의 아빠가 됐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육체와 연관된 이 모든 관계, 지위, 신분, 이걸 다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탈의실 같은 거예요.
골고다에서 일어난 십자가사건은 우리의 탈의실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탈의실에서 옷을 다 벗어놓잖아요?
겨울에 목욕탕에 가보면 특히 제가 가는 목욕탕에는 토요일 11시쯤 가면, 아침 일찍부터 등산을 갔다가 오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많아요, 그걸 다 벗어놓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많고 옷이 여러 벌이라도 다 벗게 돼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하늘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보혈에 힘입어서 죄를 씻고, 요새는 집에서 샤워들을 하니까 더럽지도 않지만

문화의식이 높아져서 샤워 하지 않고 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산하고 몸이 얼었던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육체를 벗을 때 등산 갔다 오는 사람들은 장비가 많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벗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요, 또 아주 탄탄한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런 거 십자가에서 다 벗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 아내라는 신분, 누구의 자식이라는 신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긴 모든 신분과 지위와 상황과 관계를 다 벗어버리고 욕탕에 맨 몸이 들어가듯이, 하늘나라에 맨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맨 마음이라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와 관계된 것들을 내 마음이 끌어당기고 좋아하고 아직도 관계 맺으면서 그걸 붙잡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앉힌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사람이나 관계나 어떤 것도 끌어들이지 않고 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앉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목욕탕입니다,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육체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맨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앉게 될 때,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증거가 세 가지 화평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날 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늘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된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나

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보좌에 앉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첫 번째 현실이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노래처럼 내가 사장님의 회전의자에 앉아있다, 그 마음까지 그 사업장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업장이 마음에 닿는 첫 번째 현실이 됩니다.
항상 마음은 첫 번째 현실에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만약 애인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애인이 첫 번째 현실이 되면서 그 애인으로부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은 언제나 마음에 강한 느낌을 주고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현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배 위에서 마음이 풍랑 만난 배 위에 머물고 있으면 느낌이 주어집니다, 두려움, 걱정.
풍랑 만난 사업, 아니면 잘되는 사업, 잘되는 사업에서 느낌이 주어집니다, 기쁘지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한 턱 쏩니다.
느낌의 반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마음이 앉아있을 때도 첫 번째 특징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느낌을 전달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주보고 계실 때,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신다고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주보고 있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아버지의 느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도 함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이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느낌이죠.
그 느낌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앉아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현실이 되는 바람에.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이 사업이 안 되면 사업에 흔들리고, 자식이 어떠면 자식 때문에 흔들리

고,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상황에 의해서 그대로 내 마음에 느낌이 주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결정돼버린다면 마음이 하늘에 앉힌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에 앉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마음에서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육체를 벗어야 됩니다, 맨 마음이 돼야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육체와 연관된 옷을 안 벗고 있으니까 느낌을 거기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벗고 있는 이유는 탈의실인 십자가를 마음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딱 하나가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고, 그 동안 육체를 끌어들이면서 육체와 연관된 것들을 좋아했던 내 마음이 십자가로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께 올림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느낌을 받는다, 이거 뭐 절대 화평이죠.
그리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사업장으로 나갔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도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뜻이 계신가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를 지지리 안 해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겠지! 이 평안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지 못하게 될 때는 마구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마구.

두 번째 증거는, 나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나 자신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가짜 '나'를 치워버리고 진짜 '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마음이 되어서 하늘에 앉게 될 경우에는 그때 진짜 '나'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 때라야 내 마음속에 '아,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이 진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나, 누구의 남편, 아내, 누구의 자식, 이렇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를 지나서, 예를 들어 장 동건 씨와 비교하면 나는 못생긴 '나'가 됩니다, 근데 노트르담의 꼽추와 비교하면 조금 잘생긴 '나'가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나'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 그게 내가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몸은 뚱뚱하고 못생겼다, 그게 나가 아닙니다.
이화여대 다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진짜 못쓰게 돼버린 이 지선 씨, 많이 고쳐지긴 했지

만 예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이 지선 씨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거울에 비친 자기가 자기가 아니란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얼굴을 보면서 더욱 더 그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동기가 우리보다는 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김 태희 씨가 거울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동기가 약합니다.
오히려 그 몸을 끌어안게 되는 집착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이십니까?
그게 당신이 아닙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맨 마음이 되어야 당신의 진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노숙자세요? 그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벌총수입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아닌 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든 우월감에 사로잡혀있든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짜로 나를 알고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까, 부자에요? 그거 나 아니에요, 육체와 연관된 건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마음이 앉힌 자들이라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런 말들 할 수 있어요.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위축이 된다, 파도가 크게 인다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나 이구아스 폭포 앞에 서있다든지 로키 산의 웅장함 앞에서 위축된다, 이거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대자연 앞에서 마음이 경건해지는 게 뭐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거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로키산맥을 보면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 안에 들려있는 게 마음으로 보입니다, 기가 막혀요.
왜 위축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육체에 우리 자아의식이 한계지어 있기 때문에 대자연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십자가로 옷 벗고 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손에 달랑 들려있는 것을 딱 느끼게 되요.
대자연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데, 나는 하나님 품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자연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방인들을 다 개로 취급했잖아요?
같이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멀리서 이방인이 오면 피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화평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나 하면, 유대인의 유대인 됨이 어디에 근거돼 있습니까? 육체에 근거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할례 받았다, 율법이 있다, 율법도 몸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 육체에 근거 돼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방인 됨도 육체에 근거돼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전부 맨 마음이 돼버립니다, 육체와 연관된 것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탈의실이라서.
그리고 욕탕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다 알몸인 남자들끼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 마음만 하나님 앞에 우르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는 도대체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과 아들과 딸들로서 만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타이틀,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담을 허문다, 예루살렘 성전에 담이 있었어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와 아이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다 담으로 막혀있었어요.
근데 이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자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 짚고 장대높이뛰기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담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서 기가 죽었다가도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딱 죽게 되면 그 사람의 먹는 것 입는 것 다 육체에 연관된 거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다 육체에 연관된 거라서 맨 마음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그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 담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내 마음이 앉힌바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 짚고 장대높이뛰기 하는 거예요.
장대를 잡고 높이 뛸 때 넘지 못할 담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부자다, 내가 부자이다 보니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부자 아닌 사람들 보면 시시해요,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다, 공부 못한 사람들 보면 시시해요.
근데 십자가 짚고 장대높이뛰기 하다보면 이 배우고 못 배웠다고 하는 담을 뛰어넘어버리게 되면서 사람을 맨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맨 마음으로 볼 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 예수 안 믿는 재벌총수가 있다, 그러면 육체와 연관된 재벌총수라는 타이틀 다 떼 내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만 남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만 느끼게 되고, 마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재벌총수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나처럼 되세요! 재벌이라는 것 마음에서 다 버리고 나처럼 되세요, 재벌이 당신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세요,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짚고 장대높이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탈의실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맨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느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세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세요.
이 육체의 건강을 첫 번째 현실로 느껴서 조금만 이상하면 겁먹지 말고, 아프더라도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십자가 붙잡고 맨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첫 번째 느낌으로 받고, 그리고 내 몸을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아픈 것도 은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거울 앞에 비친 나는,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어도 나가 아니에요.
휠체어에 앉아있어도 내 맨 마음이 하나님께 앉아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의 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육체와 연관된 그 사람의 타이틀과 지위,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더럽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 앉힌바 된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잊지 않으므로 십자가에서 맨 마음이 되어서 하늘에 앉힌바 되어 세가지 화평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